



## 資料

# - 중국의 곡물정책 및 화학비료 정책 -

자료 : 중국 국가 경제 · 무역위원회

OU Xinqian

## 1. 곡물정책

곡물은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에 관련된 특수품목이며 전략물자이다. 곡물생산은 12억6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인 중국의 국가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항상 자급 및 곡물확보 보호전략에 집착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은 그러한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중국의 능력에 의문을 던졌다.

중국의 실상은 이러한 질문에 이미 긍정적인 해답을 내보냈다.

곡물 및 다른 농산물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오랜 기간의 곡물 부족은 완화되었으며 전체 곡물 생산량의 대체적인 균형은 최근의 수확년도에서 잉여상태에 도달하였다. 국내 곡물은 전국적으로 중국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기본적으로 충분하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곡물생산량은 5억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총 곡물 공급량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였다.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긴 하였지만 공급 초과는 단지 이번 기간에만 있었음을 우리는 인식하였다. 곡물 수확의 기본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첫째로 곡물 생산은 기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금년에 여러성 자치지역 및 시지역에서는 심한 가뭄

\$

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뭄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 근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둘째로 중국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십년 안에 16억에 달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비교적 경작지가 적고 매년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경지면적의 7%에서 세계 인구의 22%를 먹여 살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곡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곡물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체 곡물의 량을 떠나서 중국은 또한 곡물 구조상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다시말하면 그 품질은 좋지 않으며 식품처리도 열악하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배송체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구조개선을 하기 위하여 농업구조 및 곡물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 1) 시장성향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곡물구조를 조정하고 일반적인 곡물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여러가지 작물의 생산을 확장시킬 것이다. 초점은 완벽한 다변화, 기술서비스 및 원료절감에 맞추어 질 것이다. 농민들은 특수 및 고품질의 쌀, 고 단백질의 옥수수 및 콩 종류와 같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다양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다. 보통 옥수수, 봄밀, 조생벼, 기타작물, 면화와 같은 영농에 부적합한 것을 재배하는 농지는 줄어들 것이다. 질이 낮은 과일종류는 제거시키고 새롭고 고품질의 다양한 과일이 늘어날 것이다.
- 2) 우리는 곡물 구조 조정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연구개발과 품질 다양화에 힘쓰면서 종자개량, 원가절감, 농산물 가공 및 저장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 3) 영농지역은 전국의 시장 수요에 바탕을 두고 조정될 것이다. 동부 해안지역과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국내 및 국제시장을 상대로 하는 품질개선 및 효율적인 농업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게 될 것이다.

## 2. 화학비료 공업을 위한 정책

비료는 곡물의 식량이다. 중국은 거대 비료 생산국이며 거대 비료 소비국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 비료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중국정부가

투자를 증가시킨 시기인 1970년대 이후로 더욱 급속한 성장이 이룩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년간 생산량 증가율은 4.8%에 이르렀는데 이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이다.

화학비료 생산량은 전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소, DAP, MAP, 중과석의 생산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복합비료와 NPK 혼합비료도 발전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더 발전될 잠재력은 크다. 국산비료는 전체 수요량의 7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대량 수입을 통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비료 구조에 있어서는 중국은 질소질비료는 자급하고 있지만 인산질비료는 약간 부족하고 가리질비료는 크게 부족하다. 고농도 질소비료와 인산비료는 전체 비료 중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비료의 대부분은 단비성분이며, 복합성분의 비료는 충분치 않다.

중국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나라이다. 인구는 평균 0.17%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비료 소비량은 70% 증가하였다. 비료 수요는 낙농업, 임업, 어업 및 기타 부문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다음 세기에는 중국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식량 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경작지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이며 현금작물 식재면적이 확장될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비료 수요가 증가되게 만든다. 중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비료공업이 계속 발전될 것이다.

1) 총 비료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농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료공업은 고농도 비료 및 복합비료에 최우선 위치를 둘 것이다. 동시에 원료 자원이 없고 낮은 기술 수준으로 운영되며, 저 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며, 오염을 일으키는 소규모 생산업체는 폐쇄될 것이다.

2) 우리는 비료공업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제품 혼합측면에서 NPK비료의 발전에 균형을 이룰 것이다. 초점은 고농도 비료 생산, 특히 고농도 인산비료 생산에 맞추어 질 것이다. 이는 낮은 농축도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비료상태를 개선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러성분을 포함한 복합비료를 적극 개발하여 NPK 복합비료 생산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

둘째로 원료에 있어서는 현재 중국의 질소질비료는 주로 석탄으로부터 생산된다. 무연탄과 코크스는 암모니아 제조에 공급 원료로서 주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질소질비료의 가장 좋은 원료이다. 질소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최고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토록 될 것이다. 인산비료 공업의 발전은 주로 인산에 달려 있다. 유황 자원은 충분치 않다. 그리고 중국은 용해성 가리가 부족하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내 비료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천연가스, 유황, 가리 등과 같은 국제적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비료 회사들이 경영을 향상시키고 잉여 인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개혁을 강화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그룹은 살아남게 해서 전과 같이 비료공업 종사업체가 난립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로 비료공업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가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합작업체 설립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다.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비료회사들에게 부채의 짐을 덜고 채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노력이다. 국가 경제·무역위원회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도록 권장한 이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가속화 해야 한다.

- 3)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개혁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 4) 비료 사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도 국제수준에 뒤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과학적 영농을 추진하고 비료 사용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첫째로 복합비료의 비율을 늘리고 복합성분이 포함된 복합비료와 특수비료를 개발한다. 둘째 비료 손실을 줄이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작물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균형있는 비료 사용을 장려한다. 셋째 토양분석과 작물 종류에 따라 공식적인 비료 사용을 추진한다. 넷째 중간 혹은 낮은 량의 비료성분을 포함한 비료를 사용한다.
- 5) 중국은 비료 배송체계와 판매서비스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다. 현재 비료 판매망과 농화학

써비스망에 관하여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다. 많은 생산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기가 불가능하다. 비료 배송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마케팅의 사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21세기에는 중국의 비료공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혁신과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비료공업 구조를 조정하고 시장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비료공업에 참여토록 세계 모든곳으로부터 친구를 환영하며 비료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

♣ 시종일관하는 자는 은명을 밟고, 변적 부리는 자는 요행을 걸는다.

< 디즈레이리 >